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우려고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번거로움을 참고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책을 읽어야 해? 지름길이 따로 있는데.”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도리(道理)를 얻기까지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곧바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고, 또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아 가야 한다. 길을 다 벗겨 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그제야 골수가 보이는 것이다. 거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독서란 비유하자면 집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만약 밖에서 집의 외양을 보고는 문득 ‘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알 연고가 없게 된다. 모름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보고서 이 집은 몇 칸 집이며 몇 개의 창살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

(중략)

사람들은 “독서는 마땅히 조용히 완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다. 만약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놓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만약 하루 종일 배회하면서 ‘조용하다’고 말한다면 공부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 약 달이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모름지기 센 불로 달인 다음에 약한 불로 달여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모름지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문득 나중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가서 이해하여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내 지극한 곳까지 궁구하는 것이 좋다.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널리 취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만 말뜻이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함양해야 한다. 중년이 지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려 들면 안 된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고 사색해야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 양응수, 「독서법」 -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 ②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③ 글을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한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민수’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주형: 민수야, 어제 졸업한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민수: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3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난 1년에 겨우 2권 읽을까 말까 한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기로 했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 100권을 일 년 동안 다 읽을 거야.

- ①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읽어야 해요.
- ②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점점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정해 읽는 것이 좋아요.
- ③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만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 ④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 ⑤ 읽은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적질하러 다니느냐, 계집질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썩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설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 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았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A]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낯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① 이때 두 —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이상, 「날개」 -

* 미쓰꼬시: 일제 강점기에 서울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

* 회탁의: 회색의 탁한.

* 아달린: 수면제의 일종.

3. 윗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지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지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 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위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변칙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5차

공통 영역 by 교육청, 평가원 정답

2014.04 B형 독서론(17, 18) 1. ㉔ 2. ㉑

2008.09 이상, 「날개」 (40, 41 43) 3. ㉒ 4. ㉒ 5. ㉒